

독자상담을 위한 사서교육에 관한 연구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이연옥(Yeon-Ok Lee)*

〈 목 차 〉

I. 서 론	III. 북미의 독자상담을 위한 사서교육
II. 독자상담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교육현황
1. 독자상담이란 무엇인가	2.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2. 독자상담가의 역할과 자질	IV. 결론 : 한국의 독자상담을 위한 사서교육에 관한 제언
3. 독자상담을 위한 주요 활동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북미 공공도서관의 독자상담에 주목하고, 독자상담과 관련한 사서직의 역할과 독자상담 사서의 양성실태를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미도서관협회(ALA)가 승인한 문헌정보대학원(미국 50개 대학과 캐나다 7개 대학)을 대상으로 독자상담 및 관련 교과목을 조사하여 교수요목과 교수계획표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상담과 관련한 교과목의 운영현황과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에서 도서관의 독서서비스 및 사서교육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과 과제를 논의해보았다.

키워드: 독자상담, 독자개발, 독자안내, 독서안내, 독서서비스, 참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서직교육, 전문직교육

ABSTRACT

This study discussed the roles of librarians in readers' advisory services and the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services in LIS programs. For this, literatures were reviewed and readers' advisory courses provided by LIS programs of North America were investigated.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readers' advisory cours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I suggested the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services in LIS programs of Korea.

Keywords: Readers' Advisory, Reader Development, Reader Guidance, Reading Guidance, Reading Services, Reference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Librarians Education, Professional Education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idisfeel@hanmail.net)

• 접수일: 2010년 11월 14일 •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7일 • 최종심사일: 2010년 12월 24일

I. 서 론

연구자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 동안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럼비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문헌정보대학원(The School of Library, Archival & Information Studies)에서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있으면서 북미의 공공도서관을 집중적으로 탐방할 기회가 있었다. 북미 공공도서관을 투어하면서 이 지역 도서관이 우리나라 도서관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연구자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바로 사서의 장서에 대한 장악력이었다. 사서의 장서 장악력은 특히나 고객의 독서에 대한 지원과 개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도서관의 독서에 대한 개입과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우선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 맞추어 장서를 배열하고 전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장르별로 개발된 수많은 독서 목록이나 독서 안내자료를 서가 곳곳에 배치하여 독자를 안내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도서관 내부의 각종 사인(Sign)들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시선을 이끌었으며, 독자들의 책에 대한 발견을 돋고 있었다. 도서관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독서토론회, 저자초청, 독서클럽, 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또한 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책읽기를 유혹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참고데스크에서도 사서의 책에 대한 안내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도서관 고객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책과 작가에 대해 사서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무엇을 읽으면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서를 통해 얻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은 사서들의 일상적인 업무이자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었으며 몇몇 도서관과 몇몇 사서의 노력과 열정으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로 이해되고 있었다. 고객들에게 독서자료를 안내하고, 독서를 자극하며 고무하는 이와 같은 도서관활동은 바로 ‘독자상담(Readers’ Advisory)’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독자상담은 독자와 책을 연결하는 사서의 활동으로 북미의 공공도서관은 바로 이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결과 도서관은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독서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독서와 관련한 우리 도서관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독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더불어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을 비롯한 독서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활동은 사실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던 시대에도 도서관은 오랜 동안 묵묵히 시민들에게 독서자료를 공급해왔으며, 독서교실이나 독서회를 비롯한 독서프로그램과 다양한 독서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독서를 촉구하고 지역사회 독서진흥을 위해 복무해왔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여전히

시민의 독서를 지원하는 핵심적 기관으로 인식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서 또한 시민에게 독서자료를 제공하고 시민의 독서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사서 스스로도 현장에서 이용자들의 독서자료에 대한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독서와 관련한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음 사서의 이야기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와 관련하여 처해있는 사서의 상황과 고민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가 사서라는 것을 아는 이웃주민이 자신의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행히 집에 '왕따'라는 책이 있어 권해주기는 하였지만 솔직히 이런 경우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사서라고 기대를 하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면 어찌나, 실망시켜 드리면 어찌나 싶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자기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싸우는데 특히 둘째가 돌출행동을 많이 해서 힘들다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침 저 또한 그런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독서지도 강사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 다. 그 때 추천받은 '나는 둘째입니다'라는 책을 이용자에게 권해드렸는데 이용자께서 대단히 민족하셨습니다. 책의 전문가는 바로 사서여야 하는데도 외부 강사에게 좋은 책을 물어봐야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¹⁾

우리 사회와 도서관고객은 '사서'가 독서자료(책)에 대한 전문가일 것이라 기대하나 정작 사서는 고객의 책에 대한 요구에 자신 있게, 그리고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서는 독자와 책을 연결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실제적으로 도서관의 일상적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솔직한 현실이다. 한편에서는 불행하게도 사서가 책을 모른다, 독자요구도 출판동향도 모른다는 비판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한다.²⁾ 정작 우리 사회에서 독서자료와 관련하여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가집단으로는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청소년 책에 대한 전문가집단으로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³⁾ 이들 단체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목록을 '권장도서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배포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 어린이청소년들의 책 선택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된 목록은 사서들의 책 선정에도 활용되고 있다.⁴⁾ 독서자료를

- 1) 박현영, "사서의 전문성 재고를 위한 어린이 독서치료 상황별 목록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010 전국 도서관 대회 특별연구논문집(2010. 09), p.162.
- 2) 이연옥,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09), pp.243-244.
- 3) 이연옥, "어린이서비스의 전문성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 - 어린이자료 선정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제61권, 제2호(2006. 12), p.98.
- 4) 이연옥, "아동 및 청소년도서 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 권장도서목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 06), p.49.

추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이들 집단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리의 현실은 도서관계로 하여금 독서와 관련한 시민의 요구에 도서관과 사서는 어떻게 부응할 것이며, 도서관의 독서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같은 ‘논의’⁵⁾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북미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독서지원의 실체인 독자상담에 주목하고, 독자상담과 관련한 사서직의 역할과 사서양성실태를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사서직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독자상담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사서직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자질을 필요로 하는지를 검토해보았다. 더불어 북미 문헌정보 교육과정에서 독자상담을 위한 사서는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지 교육실상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 도서관의 독서서비스 및 사서교육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과 과제를 논의해보았다.

II. 독자상담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독자상담이란 무엇인가

가. 독자상담이란

독자상담(Readers' Advisory)이란 “고객의 독서요구에 전문적인 사서가 제공하는 도서관서비스”⁶⁾를 말한다. 이는 “어떤 책이 읽기에 좋은 책인가?”라는 고객의 질문에 사서가 답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 과정에서 사서는 독자들의 독서 흥미와 취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책을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안내한다. 도서관 고객들은 도서관의 독자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즐기는 책과 작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구하게 되고, 책과 독서와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독자상담은 지역사회에서 책을 알리고 독서를 고무시키는 도서관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사서는 독자상담을 통해 독자와 독서경험을 나누며, 독자가 좋은 책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독서자료 선택을 돋는다. 이를 통해 도서관 대출을 높여내고 도서관의 고객만족도를 높여낸다.⁷⁾

5) 최근 독서와 관련하여 사서의 전문성 확보문제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이 논의를 시작하고 있어 고무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이제환, “한국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p.5-29. ; 이명희, “독서교육 교과목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 문헌정보학과에서 제공되는 독서교육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1호(2007. 06), pp.23-44. ; 변우열, 이병기,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6. 12), pp.111-141. ; 이연옥, “북미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동향과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03), pp.51-76.

6) Joan M. Reitz, *ODLIS—Online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http://lu.com/odlis/odlis_r.cfm#readersadvisory> [cited 2010. 9. 3].

7) Jane George, Michele McGraw, and Sarah Nagle, “Readers Advisory Services and Training in the North

현재 독자상담은 북미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호주의 공공도서관에서도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다.⁸⁾ 반면, 유럽에서는 독자개발(Reader Development) 혹은 독자안내(Reader Guidance)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다.⁹⁾ 또한 독자상담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서비스이지만 서점과 같은 상업적인 기관에서도 발생한다. 사서뿐 아니라 서점직원, 독서지도자, 문학교육자 등과 같은 직업군에서도 독자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¹⁰⁾

나. 독자상담의 발달과정

독자상담이라는 말은 세계 1차 대전 이후 뉴욕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대규모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그 유래는 참고서비스의 개념이 도서관에 도입되던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6년 샘uel 그린(Samuel Green)은 ‘독자들은 사서에 의한 인적인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며 ‘도서관의 고객인 독자를 진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서의 궁극적인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¹¹⁾ 이처럼 참고서비스가 도입되던 시기부터 ‘책을 매개로 하여 도서관에서 제공하던 이용자서비스의 핵심은 독자상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²⁾ 이 시기부터 1920년대까지는 독자상담이 도래한 초기독자상담 시기라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어 고객의 독서취향을 고양시키고 자기교육을 고무시키는 방향에서 독자상담이 전개되었다. 공공도서관은 절 높은 장서를 구성함으로써 독자의 삶을 보다 지적이고 문화적으로 고양시키는 것이 독자상담가들의 주요한 책무라고 여겼다.¹³⁾ 초기에는 주로 고객의 여가독서를 위한 팁션자료를 중심으로 안내하였으며, 독자를 위한 독서목록을 만들고 해제를 작성하거나 고객의 흥미에 맞는 자료의 획득 시 이를 고객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독자상담은 북미전역에 걸쳐 확대 보급되어 공공도서관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독자상담에 대한 고객의 증대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임 독자상담가를 두었다. 이 시기 독자상담의 주요한 기능은 성인교육과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며 우발적인 독자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자로 변화하도록 돋는 데 있었다.¹⁴⁾ 뿐만 아니

Star State,” *Public Libraries*, Vol.44, No.1(Jan/Fe 2005), p.29.

- 8) Sherrey Quinn, “Reading Rewards : The Evolution of a Train the Trainer Course for Public Library Reader Advisers,”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Vol.121, No.2(June 2008), pp.44-55.
- 9) Jessica Moyer and Terry Weech, “The Education of Public Librarians to Serve Leisure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Europe,” *New Library World*, Vol.106, No.1208/1209(2005), p.69.
- 10) Juris Dilevko and Candice Magowan, *Readers' Advisory Service in North American Public Libraries, 1870-2005*(Jefferson, NC : McFarland & Company, 2007), p.3.
- 11) Stephanie Maatta, *A Few Good Books : Using Contemporary Readers' Advisory Strategies to Connect Readers With Books*(Neal-Schuman Publishers, Inc., 2010), p.17.
- 12) 이제환, “한국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8.
- 13) Stephanie Maatta, *op. cit.*, p.18.
- 14) Bill Crowley, “Rediscovering the History of Reader Advisory Service,” *Public Libraries*, Vol.44, No.1(Jan/Fe 2005), pp.38-39.

라 이 시기에는 미도서관협회(ALA)를 중심으로 독자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전개되어 도서관의 독자상담서비스의 기초를 제공하며 깊이를 더했다. 이 시기에는 핵심 뿐 아니라 철학, 여행,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독자들의 자기교육을 위한 독서자료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사서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독서를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에 맞는 독서자료를 안내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요 주제와 관련한 독서목록을 만들고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¹⁵⁾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자상담서비스는 침체를 겪게 된다. 전쟁이후 시민들의 일과 관련한 요구가 증가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가 및 자기교육을 위한 독서시간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독자상담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도서관의 독자상담서비스도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독자상담이 약화되는 데는 사서가 개별고객과 인터뷰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개별리스트를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노동집약적이라는 독자상담의 특성에 대한 도서관경영진의 판단도 작용하였다.¹⁶⁾ 그 결과 개별 독자와 접촉하는 독자상담이 포기되거나 약화되었으며, 독자상담을 단독으로 분리하여 지속하기 보다는 성인서비스 부서로 통합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¹⁷⁾ 전쟁이후 독자상담서비스는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¹⁸⁾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독자상담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였다. 독자상담에 대해 사서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전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독자들의 독서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이를 위해 독자들이 도서관에 온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북미의 공공도서관에서 고객의 80% 이상이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오며, 도서관 대출의 80%가 핵심자료라는 통계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¹⁹⁾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미국 도서관계는 독자상담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94년 미도서관협회의 분과인 RUSA(The Reference Users Services Association)가 주축이 되어 독자상담위원회(Readers'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독자상담 업무수행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사서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²⁰⁾ 뿐만 아니라 독자상담에 대한 훈련과 강습이 미국 전역에 걸쳐 주 단위, 시단위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초반까지 독자상담 관련 연구논문은 극소수였으나 Joyce Saricks²¹⁾의 독자상담을 촉구하는 책의 출판이후 독자상

15) Stephanie Maatta, *op. cit.*, pp.19-21.

16) Jessica Moyer and Terry Weech, *op. cit.*

17) Bill Crowley, *op. cit.*, p.39.

18) Jessica Moyer and Terry Weech, *op. cit.*

19) *Ibid.*, p.67.

20) Readers' Advisory Committee 외에 ALA 산하 YALSA(Young Adults Library Services Association)와 ALSC(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s to Children)에서도 청소년독자와 어린이독자를 위한 독자상담과 관련한 다양한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²²⁾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독자상담은 초기의 교육적 역할과는 다르게 여가를 위한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사서가 책을 안내함으로써 독자들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 독서경험에 기초하여 독자에게 책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독자’와 ‘독자의 요구 및 관심’이 현 시대 독자상담의 핵심으로 남아 있으며,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것’을 독자상담 사서의 주요한 역할로 규정한다.²³⁾ 또한 공공도서관 독자상담의 주요 고객이 성인이었으나 현재는 어린이, 청소년 등 모든 연령대의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에서도 독자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유형에 있어서도 현재의 독자상담은 픽션과 넌픽션에 대한 작업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책뿐만 아니라 DVD,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여 서비스하고 있다.²⁴⁾

오늘날, 독자상담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여 ‘독자상담의 르네상스’²⁵⁾를 경험하고 있다고는 하나 독자상담을 전담할 부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도서관에서의 독자상담 활동은 주로 레퍼런스서비스(Reference Services)나 대중서비스(Public Services)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⁶⁾ 또한 독자상담 업무의 수행방식에 있어서도 개별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자상담 보다는 표준화된 독서목록의 개발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자료를 안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²⁷⁾ 하지만 북미의 많은 공공도서관에는 개별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관심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입각하여 독서자료를 제공하는 전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서들은 독자로부터 책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대답함으로써 독자들의 책 선택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돋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독자상담가의 역할과 자질

현재 독자상담가는 독자상담사서, 픽션사서, 퍼블릭서비스사서, 성인서비스사서 등 많은 이름으로 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과는 별개로 독자상담가는 독자와 책을 연결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역할로 독자의 흥미에 헌신하며 독자의 독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려있고, 민감하며,

21) Joyce Saricks가 1982년에 처음 출판한 *Readers' Advisory Service in Public Library*는 북미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주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 책은 교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22) RUSA가 출판하는 저널인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RUSQ)를 필두로 해서 *Library Journal*, *Library Quarterly*, *Public Libraries*, *Reference Librarian*, *RQ* 등의 잡지에 독자상담관련 칼럼과 글이 실리고 있다.

23) Joyce Saricks, *Readers' Advisory Service in the Public Library*, 3rd ed.(ALA, 2005), p.12.

24) *Ibid.*, pp.1-13.

25) Jessica Moyer and Terry Weech, *op. cit.*, p.70.

26) Stephanie Maatta, *op. cit.*, p.23.

27) 이제환, 전계논문, p.13.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²⁸⁾ 독자상담 사서에 대한 역할과 자질에 관한 내용은 다양한 연구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는 특히 Smith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Smith는 독자 및 사서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독자상담에 필요한 사서의 자질을 제시하고 있다.²⁹⁾ 그는 1) 책에 대한 배경지식, 2) 독자에 대한 이해, 3) 책의 호소력에 대한 이해, 4) 독자와의 상담과정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독자상담가에게 요구되는 필수적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위의 각 요소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객의 독서흥미와 요구에 부응하는 적합한 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독자상담가인 사서는 기본적으로 책과 작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서는 작가나 장르, 구체적 작품을 알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책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질 높은 독자상담을 위해서는 단지 ‘책에 대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책과 독서에 대한 열의’를 필요로 한다. 사서는 개별 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독자들이 독서를 통해 경험한 기쁨과 감동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³⁰⁾

‘독서분야에 대한 배경’, ‘책과 작가에 대한 지식’, ‘독서에 대한 열정’ 등의 표현은 독자상담가의 역할과 자질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독자상담을 위한 사서가 책과 작가에 친숙해지고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사서 스스로가 독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고객의 독서에 조언하고 고객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서가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독자상담을 담당하는 사서들에게 강조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훌륭한 독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읽고, 읽고, 또 읽어야 한다. 당신이 고객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신이 미래 고객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읽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과학소설과 관련한 독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면 당신은 미래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과학소설을 읽어야 한다.”³¹⁾

이처럼 ‘책읽기(Reading)’는 독자상담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사서들의 주요 전략으로 “최상의 독자상담가는 읽기를 좋아한다”며 도서관의 전 직원에게 ‘읽기(Reading)’를 고무시키고 있다.³²⁾

28) Stephanie Maatta, *op. cit.*

29) Duncan Smith, “Talking with Readers : A Competency Based Approach to Readers’ Advisory Service,” *Reference & User Service Quarterly*, Vol.40, No.2(Winter 2000), pp.135-142.

30) Joyce Saricks, *op. cit.*, p.7.

31) Duncan Smith, “Reinventing Readers’ Advisory,” *The Readers’ Advisor’s Companion*, Kenneth Shearer and Robert Burgin ed.(Libraries Unlimited, 2001), p.65.

32) Catherine Sheldrick Ross, “Reader’s Advisory Services : New Directions,” *RQ*, 30(Summer 1991), p.515.

또한 독자상담 사서의 채용과정에서 사서들의 책읽기가 명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일리노이 주의 Downers Grove 공공도서관은 독자상담을 담당할 직원채용을 공고할 시에 “한 달에 2권 이상 책을 읽고, 이에 대해서 리뷰해야 한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다.³³⁾ 이와 같이 독자상담서비스에서 사서가 작가와 작품을 읽고 연구하며, 리뷰하는 활동은 사서의 일과로 간주되고 있다.

다음으로, 독자상담가에게는 ‘독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중의 독서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자에게 있어서 책의 의미와 가치, 독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자의 책에 대한 요구와 흥미, 책을 선택하는 이유, 독서습관이나 태도 등의 독서행태와 책과 독자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비롯한 독자의 반응 등 독자의 독서경험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독자상담가는 ‘책의 호소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상담을 담당하는 사서는 책의 어떤 부분이 독자의 주의를 끌어내는지, 독자에게 책이 흥미롭고 매력적인 다양한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책의 매력적인 요소에 대해서 해제나 서평을 작성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언어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책의 호소력을 분석하는 능력은 좋은 독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³⁴⁾

마지막으로, 독자상담가와 독자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독자상담과정(혹은 면담과정)에서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사서가 독서요구를 비롯한 독자의 취향과 관심을 대화를 통해 알아내고 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독자상담은 고객과 책(정보원)을 연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고객과 도서관사서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레퍼런스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본다. 혹은 도서관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레퍼런스서비스의 기본적인 확대로 간주한다.³⁵⁾ 따라서 독자상담자가 독자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독자상담작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레퍼런스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나 독자상담은 질문과 대답의 교환이라기보다는 상담가와 독자 간의 책에 대한 대화로 간주한다. Smith는 이것이 바로 독자상담과 레퍼런스의 주요한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레퍼런스작업에서는 사서가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지만 독자상담에서는 카운슬러로 행동한다고 하였다.³⁶⁾ Kuhlthau 또한 사서가 독자의 흥미, 요구와 관심 등의 경험을 알아내어 좋은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 같은 활동을 ‘카운셀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⁷⁾ 그녀는 독자의 독서욕

33) Joyce Saricks, *op. cit.*, 168.

34) *Ibid.*, p.139.

35) David Beard and Kate Vo Thi-Beard, “Rethinking the Book: New Theories for Readers’ Advisory,”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7, No.4(Summer 2008), p.332.

36) Duncan Smith, “Talking with Readers: A Competency Based Approach to Readers’ Advisory Service,” *op. cit.*, p.139.

37) Carol Kuhlthau,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2nd ed.(Libraries unlimited, 2004) p.127-144. : Duncan Smith, “Reinventing Readers’ Advisory,” *The Readers’ Advisor’s*

구를 충족시키는 보다 성공적인 안내를 위해서는 레퍼런스의 협상과정보다 좀 더 치밀하고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독자상담과정에서 사서가 독자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책과 작가를 대화를 통해 알아내고 이를 독자에게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독자상담가의 개인적 판단을 피하여 제안해야 하는 등 독자와의 상담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³⁸⁾

3. 독자상담을 위한 주요 활동

독자상담을 위한 주요 활동은 사서가 독자와 책을 연결하고 안내함으로써 이용자인 독자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는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별독자의 관심과 요구, 독서경험과 수준, 배경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독서자료를 안내하거나 개별화된 독서목록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이는 독자상담의 기본 활동으로 간주하며 현재에도 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개별 독자를 위한 독서목록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신적 노력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곧 독자상담의 취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독자상담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도서관업무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고 이는 독자상담 업무의 축소를 야기하였다.³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독자상담 업무의 수행방식에 있어서 변화와 다각화를 유도하였다. 사서들은 고객과 책을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서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도 독자 스스로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적 독자상담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간접적 독자상담은 셀프서비스 독자상담(Self-Service Readers Advisory)이라 불리기도 한다.⁴⁰⁾

먼저, 간접적 독자상담서비스의 가장 주요한 방식은 '표준화된 독서목록(Booklists)'의 개발과 이를 통한 안내이다. 독자들의 독서욕구와 흥미, 경향에 대한 분석과 서비스경험을 토대로 미리 독서목록 형태의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비치함으로써 독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독서목록은 개별독자가 원하는 책을 찾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고객의 독서욕구를 고민시켜 새로운 독자로 만들기도 한다. 동시에 사서가 개별독자에 맞는 적합한 독서자료를 안내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목록을 개발하는 데는 특정 토픽을 선정하는 데서

Companion, Kenneth Shearer and Robert Burgin ed.(Libraries Unlimited, 2001), p.65.

38) Duncan Smith, "Talking with Readers: A Competency Based Approach to Readers' Advisory Service," *op. cit.*

39) Sharon Baker, "Laying a Firm Foundation Administrative Support for Readers' Advisory Services," *Developing Readers' Advisory Services: Concepts and Commitments*, Kathleen McCook & Gary Rolstad ed.(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1993), pp.15-16.

40) Keddy Ann Outlaw, "Self-Service Readers Advisory," *Public Libraries*, Vol.44, No.1(Jan/Fe 2005), pp.9-11.

부터 시작하여 관련 책을 선택하고 각 책에 대한 해제작성, 제작 및 인쇄, 비치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사서나 고객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⁴¹⁾ 또한 이러한 독서목록은 북마크(Bookmarks), 북뉴스(Book News), 북리뷰지(Book Review) 등의 책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하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이처럼 독서목록을 비롯하여 북마크, 북뉴스 등을 통해 사서는 고객이 그들에게 매력적인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독자와 도서관자료의 연결은 ‘자료의 배열’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는 소극적인 독자상담으로 간주되지만 독자의 독서자료에 대한 손쉽고 효율적인 접근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북미의 경우 픽션장서는 대개 듀이십진분류표나 LC시스템에 의해 분류되고, 작가명이나 작품명의 알파벳순에 따라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료조직 시스템은 독자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종류의 책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정확한 작가명이나 작품명으로만 찾을 수 있기에 독자들이 특정 주제에 관한 픽션자료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구체적인 작품명을 가진 독자라 할지라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책을 찾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이 예전히 발생한다.⁴²⁾ 이처럼 도서관의 자료조직 시스템에 따른 분류와 배열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로 인해 독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장벽을 보완하기 위해 북미 도서관의 경우 주제나 장르에 따른 배열을 시도하고 있다. 픽션자료의 장르별 배열은 독자가 픽션자료에 접근하는 데 나서는 한계점을 해결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북미도서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넌픽션 장서에도 적용되고 있다.⁴³⁾

장르별 장서배열과 더불어 사인(Signs), 라벨(Labels) 또한 독자로 하여금 좋은 책으로 이끄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된다. 책이 배열된 서가에 장르별 사인을 표시하거나 책등에 장르를 표시하는 라벨을 부쳐 배열함으로써 독자들이 원하는 책의 발견을 용이하게 한다.⁴⁴⁾ 이처럼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장서의 배열과 사인(Signs)과 라벨(Labels) 등을 통해서 독자들의 독서흥미와 관심에 맞게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사서들은 독자의 독서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배열전략을 찾아내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책전시(Book Displays)’도 독자들에게 책을 알리고 독서를 고무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시는 도서관 서가에 배열되어 있는 책을 독자가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출률을 자연스럽게 높여낸다. 이러한 점에서 전시는 도서관장서의 폭과 깊이를 독자에게 알려

41) Joyce Sarkcks, *op. cit.*, pp.145-155.

42) 물론 북미 도서관의 경우 subject heading, pathfinder, subject classification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도 하지만 이는 고객용이라기보다는 레퍼런스 사서가 고객 지원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Joyce Saricks, *op. cit.*, p.139.

43) 넌픽션 장서는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 주제구분, 예를 들어 요가, 요리, 부동산, 창업, 동물, 컴퓨터, 환경, 질병, 중독, 정신건강, 육아, 결혼, 사랑, 성 등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독자의 자료접근을 돋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시로 언급한 부분은 캐나다 리치몬드시 Richmond Public Library의 넌픽션 장서의 배열 구분이다.

44) Jane George, Michele McGraw, and Sarah Nagle, *op. cit.*

내고, 도서관의 장서를 마케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에서는 주기적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전시테마를 정한 뒤 그 테마에 포함될 책들을 선정하고, 고객들의 동선과 시선이 머무는 장소(출입구, 서가, 통로, 대출대,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디스플레이를 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서가에 책표지가 노출되도록 배열하거나, 북자켓을 이용해서도 이용자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책뿐 아니라 사서들이 개발한 독서목록을 전시함으로써도 독자에게 책을 마케팅한다. 이처럼 도서관은 서가에 묻혀있는 다양한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독자들의 책에 대한 '발견'을 돋우고,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⁴⁵⁾

독자상담 중에서도 가장 가시적이고 인기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책과 독서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다.⁴⁶⁾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독서토론회, 저자초청, 독서클럽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북토크(Booktalk), 여름방학독서클럽(Summer Reading Club) 등도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를 위한 독서프로그램으로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에서도 실행하고 있다.⁴⁷⁾

이와 더불어 도서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분위기도 고객의 책에 대한 접근과 책 선택을 고민시킬 수 있다. 독자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데스크의 위치와 분위기, 독자상담서비스에 관한 명확하고 읽기 좋은 사인(Sign) - 예를 들면 '좋은 책을 찾고 있습니까? 여기로 문의하세요'⁴⁸⁾ - 도 독자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고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조명, 서가 사이에 안락한 의자를 두는 것도 책을 선택하고 독서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책표지가 보이도록 배열하는 등의 디스플레이 방법도 독자의 책에 대한 브라우징을 용이하게 하고 주의를 끌게 하는 도서관 분위기를 만든다. 이와 같이 사서들은 도서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독자의 책과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독자상담 활동은 디지털 환경에 맞게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책과 독자를 연결하고 독자의 독서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테면 도서관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버전의 독서목록을 제공하거나 다른 웹사이트의 독서목록으로 연결하여 안내한다. 온라인에서 사서가 북리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북리뷰 활동에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페이스북(Face Book), 마이스페

45) Nora Armstrong, "No, Thanks-I'd Rather Do It Myself: Indirect Advisory Services," *The Readers Advisor's Companion*, Kenneth Shearer and Robert Burgin ed.(Libraries Unlimited, 2001), pp.179-190. : Joyce Saricks, *op. cit.*, pp.139-144. : Jane George, Michele McGraw, and Sarah Nagle, *op. cit.*, pp.29-32.에서 참고.

46) Nora Armstrong, *op. cit.*, p.185.

47) Carol A. Doll, "Advisory Services in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The Readers Advisor's Companion*, Kenneth Shearer and Robert Burgin ed.(Libraries Unlimited, 2001), pp.149-177.

48) 이외에도 보통 'Reader' advisory Service', 'Not Sure what to Read?', 'Reading Suggestions' 등의 사인으로 독자상담을 안내한다. Joyce Saricks, *op. cit.*, p.138.

이스(My Space), 트위터(Twitter)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나 블로그(Blogs), 위키(Wikis) 등을 통해 독자와 작가, 독자와 다른 독자를 연결하고 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안내하는 독자상담의 방식이 보다 진화되고 있는 것이다.⁴⁹⁾

한편, 이 같은 다양한 독자상담 활동의 배경에는 책과 관련한 사서들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이 수반되고 있다. 독자상담가인 사서는 고객에게 인기 있는 작가와 작품 등 책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작가와 작품을 읽고 연구하며,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의하는 등의 책에 대해 치밀해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다. 고객과의 책에 대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 자신만의 독서계획(예를 들면, 특정 장르 읽기, 자신과 친근하지 않은 장르 읽기, 베스트셀러 작가나 작품 읽기 등)을 세우고, 자신만의 독서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책에 대한 기억을 체계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독서관련 잡지나 리뷰지를 검토하고, 작가 및 독서관련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여 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책에 대해 글을 쓰고 북리뷰를 작성하는 것도 사서들의 일과다. 이처럼 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한 사서의 일상적인 노력은 독자상담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고 있다.

III. 북미의 독자상담을 위한 사서교육

1. 교육현황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이후 독자상담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게 되면서 공공도서관에서 독자상담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증가하게 되었고, 더불어 독자상담을 담당할 사서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서를 양성하는 문헌정보대학원에서는 독자상담 관련 교과목을 편성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미도서관협회 산하의 독자상담위원회(Readers' Advisory Committee)가 중심이 되어 독자상담 관련 컨퍼런스를 비롯한 사서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현장의 사서들을 위한 계속 교육과 상호 교류를 도모해오고 있다. 사서들을 위한 독자상담 컨퍼런스나 프로그램은 북미전역에 걸쳐 주 혹은 시 단위로 전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독자상담을 위한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직원’⁵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독자상담 서비스의 실행주체인 사서는 북미에서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지 교육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49)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문헌에서 살펴볼 수 있다. Stephanie Maatta, “Tags, Clouds, and Participatory Readers’ Advisory Services,” *A Few Good Books: Using Contemporary Readers’ Advisory Strategies to Connect Readers with Books*(Neal-Schuman Publisher, Inc., 2010), pp.39-59.

50) Jane George, Michele McGraw, and Sarah Nagle, *op. cit.*, pp.31-32.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4호)

미도서관협회(ALA)가 승인한 문헌정보대학원(Schoo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검토해보았다. 구체적으로, 2010년 5월 한 달 동안 미국 50개 대학과 캐나다 7개 대학 문헌정보대학원의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독자상담 및 관련 교과목을 조사하였고 교과요목과 교수계획표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상담과 관련한 교과목의 운영현황과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인 57개의 문헌정보대학원 중에서 13개 학교가 독자상담 교과목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전체 문헌정보대학원 중에서 약 23%의 대학에서만 독립교과 형태의 독자상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9개 대학에서 Readers Advisory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Reading Interests of Adults'(2개 대학)라는 교과명을 비롯하여 'Popular Materials and Programming for Adults'(1개 대학), 'Adult Popular Literature'(1개 대학), 'Adult Reader Services in the Public Library'(1개 대학)라는 교과명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 대학의 경우 독자상담 교과목으로 'Readers' Advisory in the Public Library' 와 'Genres of Fiction and the Reader'이라는 명칭의 2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울러 독자상담은 참고서비스나 개론 등 인접 교과목 영역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⁵¹⁾

〈표 1〉 북미 문헌정보대학원의 독자상담(Readers Advisory) 교과목 운영 현황

대학	교육 프로그램	독자상담 교과목
Louisiana State University	SLIS	- Literature and Methods for Reader's Advisory Services
Indiana University	SLIS	- Adult Readers Advisory
Dominican University	SLIS	- Readers Advisory Services
University of Arizona	SLIS	- Readers' Advisory in Public Librarie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SCI	- Reading Interests of Adult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SLIS	- Popular Materials and Programming for Adult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SLIS	- Reading Interests of Adults
University of Washington	SI	- Adult Reader Services in the Public Library
University of Illinois	SLIS	- Adult Popular Literature
Kent State University	SLIS	- Special Topics: Readers' Advisory Services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SLIS	- Readers' Advisory in the Public Library - Genres of Fiction and the Reader
University of Toronto	SI	- Readers' Advisory : Reference Work and Resource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LAIS	- Issues in Information Services : Viewer' Advisory Services for Adults

51)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문헌정보대학원의 독자상담관련 교과목 현황을 조사한 이제환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미국의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 중 독자상담을 독립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자상담은 참고서비스, 개론,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등의 인접교과목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환, 전계논문, pp.13-14.

한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자상담 교과목은 독자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기본적으로 다루며 주로 ‘성인’을 위한 독자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상담은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토대로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 교과목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비롯하여 이들 자료의 제작방법과 안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교과목은 독자상담과 연관된 교과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교과목을 비롯하여 기타 독자상담과 연관된 교과목의 구체적인 실체와 규모를 동시에 파악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독자상담 교과목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3개 대학을 중심으로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가 〈표 2〉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미국 문헌정보대학원의 독자상담 연관 교과목 현황

대학(미국)	독자상담 연관 교과목
Louisiana State University	- Media and Services for Children - Media and Services for Young Adults - Media and Services for Adolescents
Indiana University	- Materials for Youth - Seminar on Literature for Youth - Youth Services
Dominican University	- Library Materials for Young Adults - Library Materials for Children -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 Enhancing Language and Literacy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through Children's Literature -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Storytelling for Adults and Children
University of Arizona	-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in a Multicultural Society - Children and Public Libraries - Young Adults and Public Libraries - Early Childhood and Public Librarie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Materials for Children - Materials for Young Adults - Social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Children's Materials - Young Adult Materials - Materials for Early Childhood - Library Programming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Introduction to Children's Literature - Children's Literature - Young Adult Literature - Topics in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University of Washington	- Children's Materials : Evaluation and Use - Young Adult Materials : Evaluation and Use - Public Library Services for Youth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4호)

대학(미국)	독자상담 연관 교과목
University of Illino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terature and Resources for Children - Literature and Resources for Young Adults - The Picture Book - Critical Studies in Child Literature -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 Fantasy Literature and Media for Youth - Poet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Fairy Tales as Literature - Children's Literature Goes to the Movies - Books & Boy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 GLBTQ Materials for Young Adults - Myth and Legend in Children's Literature - Youth, Literature and Culture - Information Books and Resources for Youth - Storytelling - Youth Services Librarianship - Serving Children in School /Community - Literacy, Reading and Reader - History of Readers
Kent State Univer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brary Materials and Services for Very Young Children - Library Materials and Services for School-Age Children - Library Services to Young Adults - Reference Sources and Services for Youth

〈표 3〉 캐나다 문헌정보대학원의 독자상담 연관 교과목 현황

대학(캐나다)	독자상담 연관 교과목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loring and Understanding Comic Books and Graphic Novels in Libraries - The Place of Folktale/Myth Collections in Public, School and Academic Libraries -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 Children's Materials(Birth- 7 Years) : Evaluation and Use - Materials for Older Children(8 to 12 years) - Young Adult Materials -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Youth, Information and Library Services - Reading theory and Practice
University of Toron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phic Novels and Comic Books in the Library - Issues in Children's and Young Adult's Services - Reading: Theories, Practices,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vey of Literature and Other Materials for Children - Contemporary Literature and Other Materials for Children - Literature and Other Materials for Children - First Nations Literature and Other Material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Canadian Literature and Other Materials for Children - Writing, Publishing and the Book Trade for Children - Illustrated Literature and Other Materials for Children - Literature and Other Materials for Young Adults - Services for Children - Services for Young Adults - Services for Families and Early Literacy in the Preschool Years

〈표 2〉와 〈표 3〉을 통해 볼 때 어린이(청소년) 관련 교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과구성은 도서관의 독자상담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어린이실에서 제공되는 독자상담은 비교적 잘 되는데 비해 성인장서를 토대로 하는 독자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성인 대상의 독자상담에 대한 사서들의 훈련과 준비가 부족하다”⁵²⁾는 일련의 비판은 북미 도서관계에서의 독자상담의 현재적 상황을 가늠하게 한다. 이와 아울러 북미 문현정보대학원에서 독자상담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23%에 그치고 있어, “독자상담 교과과정이 없는 학교가 많아 공공도서관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독자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진출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고”⁵³⁾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미 문현정보대학원에서의 독자상담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족해 도서관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독자상담이 도서관현장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왜일까? 도서관현장에서의 독자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문현정보대학원에서 독자상담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문현정보학자들은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다.

우선은 북미 도서관계의 ‘독자상담’에 대한 인식과 운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Fleet는 독자상담은 독서목록과 같은 도구를 개발하고 정보원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두는 실무적 특성이 강하여 현장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다고 보는 북미 도서관계의 전반적인 인식 때문에 문현정보대학원에서 독자상담 교과목의 약화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⁵⁴⁾ 독자상담에서 실무적 특성에 대한 강조는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독자상담은 다른 교과목에 비해 이론적이고 지적 기반이 약한 것으로 간주되었다.⁵⁵⁾ 실무와 실습 중심의 독자상담은 해당교과목의 학문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교과목의 학문성을 중시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독립교과목으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⁵⁶⁾ 독자상담을 둘러싼 이와 같은 상황은 문현정보대학원에서 전임교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필요성을 약화시키게 했다. 이로 인해 독자상담 분야는 전임교수 없이 파트타임의 강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었다.⁵⁷⁾ 독자상담 교과목을 전임교수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북미 문현정보대학원에서 독자상담 교과목의 현재적 위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2) Kenneth Shearer and Robert Burgin, "Partly Out of Sight : not Much in Mind : Master's Level Education for Adult Readers' Advisory Services," *The Readers Advisor's Companion*(Libraries Unlimited, 2001), p.15.

53) Jessica Moyer and Terry Weech, *op. cit.*, p.76.

54) Connie Fleet,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Servic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7, No.3(2008 Spring), pp.224-229.

55) 이에 대해서는 독자상담의 교육내용을 다루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56) 이제환, 전계논문, p.15.

57) Connie Fleet, *op. cit.*, p.227.

이와 더불어 독자상담은 독립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분야로 인식하기보다는 레퍼런스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도 독자적인 교과목을 구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⁵⁸⁾ 또한 독자상담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유용하나 학교와 공공도서관보다는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비중을 두는 교과구성도 독자상담 교과목이 약화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⁵⁹⁾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북미 문현정보학의 경향과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문현정보학이 정보기술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교육프로그램 또한 정보기술과 관련한 분야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에 전통적인 도서관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서관의 독서기관으로의 전통과 의미를 간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문현정보학 교육과정에서 ‘독서(reading)’와 ‘독자(reader)’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처럼 정보기술에 중점을 두는 학문적 경향과 추세가 문현정보학에서 ‘독자상담’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⁶⁰⁾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미 문현정보학의 이 같은 경향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Wiegand는 고객들이 도서관에서 독서자료를 대출하고, 도서관이 이를 공급해온 역사는 1세기가 넘는 공공도서관의 전통임을 강조하며,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접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여전히 독서자료의 공급처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경고는 우리나라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주장을 직접 살펴보자.

새로운 정보기술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독서에 부여하는 다양한 가치를 분석하는 연구와 학문을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횡금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LIS 교육이 독서행위에 대해 잘 연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연구자 이외에 우리는 그 주제를 무시해왔다. 우리가 독서에 대한 연구를 무시하는 것은 독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직업의 미래를 매우 제한적으로 만들 것이다.⁶¹⁾

이처럼 ‘독서’는 북미 문현정보학에서 중심 테마가 되지 못했으나 고객은 도서관을 독서기관으로 활용해왔으며, “도서관에서 독서에 대한 안내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58) *Ibid.*, p.228.

59) Data Watson & RUSA CODES Readers' Advisory Committee, "Time to turn the Page: Library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Servic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0, No.2(Winter 2000), p.144.

60) 다음의 논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 : Wayne Wiegand, "Missing the Real Story: Whe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ails the Library Profession," *The Readers' Advisor's Companion*(Libraries Unlimited, 2001), pp.7-14. : Kenneth Shearer & Robert Burgin, "Partly Out of Sight : not Much in Mind : Master's Level Education for Adult Readers' Advisory Services," *The Readers Advisor's Companion*(Libraries Unlimited, 2001), pp.15-25.

61) Wayne Wiegand, "Misreading LIS Education," *Library Journal*, Vol.112, No.11(June 1997), pp.36-39.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책에 대해서 잘 알고, 가치 있는 독서자료를 추천해줄 수 있는 자라고 기대”⁶²⁾하는 것이 고객들의 일반적 정서인 것으로 관찰된다. 북미의 문헌정보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사서가 독서에 대한 고객들의 도움요청에 부응하고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에서 ‘독서’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⁶³⁾

2.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이 절에서는 독자상담 교과목의 주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독자상담 교과목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3개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계획표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 중 미국의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Louisiana State University), 인디애나대학(Indiana University), 도미니칸대학교(Dominican University), 아리조나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 럭거스뉴저지주립대학교(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와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웨스턴온타리오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Ontario),⁶⁴⁾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총 8개의 대학으로부터 교수계획표가 수집되었다.⁶⁵⁾ 이를 자료를 토대로 독자상담 교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독자상담 교과목은 유능한 독자상담가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지식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1) 도서관에서의 독자상담의 중요성과 독자상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자각한다. 2) 독자들의 책에 대한 관심과 취향, 요구를 알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타이틀을 제공할 수 있다. 3) 장르별 빅션자료와 넌픽션자료를 식별하고, 토의하며, 추천할 수 있다. 4) 책에 대한 호소력을 알고, 이에 대한 해제를 작성할 수 있다. 5) 독자상담을 위한 도구와 정보원을 평가하고 이용할 수 있다. 6) 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62) Sharon Baker, “Laying a Firm Foundation: Administrative Support for Readers’ Advisory Services,” *Developing Readers’ Advisory Services: Concepts and Commitments*, Kathleen McCook & Gary Rolstad ed.(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1993), p.16.

63) LIS 프로그램에서 독자상담을 비롯한 독서 관련 교과목의 강화를 주장하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 Data Watson & RUSA CODES Readers’ Advisory Committee, “Time to turn the Page: Library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Servic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0, No.2(Winter 2000), pp.143-146. : Connie Fleet,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Servic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7, No.3(Spring 2008), pp.224-229. : Bill Crowley, “‘Taught at the University on a Higher Plane Than Elsewhere’: The Graduate Education of Readers’ Advisors,” *The Readers Advisor’s Companion*, Kenneth Shearer and Robert Burgin ed.(Libraries Unlimited, 2001), pp.27-58.

64)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학(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에서는 두 교과목, ‘Readers’ Advisory in the Public Library’라는 교과목과 ‘Genres of Fiction and the Reader’이라는 교과목의 교수계획표를 수집하였다.

65) 나머지 5개 대학은 교수요목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다.⁶⁶⁾

한편, 독자상담 교과목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대학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8개 대학의 교수계획표를 종합한 결과, 다음의 〈표 4〉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독자상담 코스는 독서의 본질과 의미, 독자의 요구와 흥미, 독서행태, 대중문화와 대중문학, 문학의 장르별 연구, 문학비평과 분석 등 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기반을 두고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교과목의 운영은 독자상담의 실행을 위한 기능과 기술을 익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강좌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장르를 읽고, 책이 호소하는 바를 식별해내고, 해제를 작성함으로써 책에 대한 장악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⁶⁷⁾ 이를 위해 특히 장르별 광선자료의 주요한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범죄, 탐정, 로맨스, 과학소설, 서부소설, 판타지, 호러, 모험소설, 역사소설, 기독교소설 등의 장르별 경향과 베스트셀러 경향을 파악하며, 이를 자료를 읽고, 책이 호소하는 바를 식별해내어 해제나 서평을 작성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과제로도 연결되고 있었다. 모든 대학에서 장르별 해제를 작성하거나 주제별 독서목록을 만드는 것을 과제로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책에 대한 제시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북토크나 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독서목록을 비롯한 독자상담을 위한 기본 도구를 만들거나 북마크나 브로슈어 등을 제작해보는 등 독자들이 책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개발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표 4〉 독자상담 교과목의 주요내용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상담의 원리 - 독자상담의 역사와 현재 - 독서의 의미와 가치, 여가독서의 중요성 - 대중문화와 대중문학 - 출판경향 - 독자의 요구와 흥미, 독서경향, 독서행태 - 참고서비스와 독자상담의 관계 - 독자상담서비스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 독자상담 인터뷰 - 독자 프로파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의 호소력 - 해제 및 서평 작성 - 독자상담을 위한 도구와 정보원 - 장르별 광선자료 - 넌광선자료 - 광선장서관리 - book discussions 그룹의 조직과 운영 - 독서진흥활동(마케팅): 독서목록, 북마크, 배열, 전시 등 - 책과 관련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이에 더해, 대부분의 독자상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독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는 도미니칸, 인디애나, 아리조나

66) Louisiana State University SLIS의 〈Literature and Methods for Reader's Advisory Services〉교과목과 Indiana University SLIS의 〈Adult Readers Advisory〉 교과목의 교수계획표를 참고하였다.

67) Connie Fleet, *op. cit.*, p.225.

대학의 독자상담 교과목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는 독자상담 인터뷰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쌓기 위해 학생들이 독자가 되어 사서에게 질문하게 하고 이에 대한 사서의 대응을 관찰하도록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더불어 학생들이 직접 독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하고 자료를 선정한 뒤 이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도록 하는 과제수행을 통해서도 독자상담 인터뷰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익히고 있었다.

이처럼 독자상담 교과목은 독자상담 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기법을 익히고, 이를 학생들의 실습과 과제를 통해서 훈련하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이 같은 실무와 실습 중심의 독자상담 교과목 운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자상담 교과목의 학문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교육과정에서 독립교과목으로 유지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실무와 기법 중심의 독자상담 교과목 운영에 대해 현장과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Wiegand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독자상담 교과목에서 독자상담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독자반응이론, 책과 독서의 역사, 독서행태에 대한 이론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분야를 보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⁶⁸⁾ 이와 더불어 Beard와 Thi-Beard는 표준화된 독서목록이나 도구에 의존하는 독자상담 업무와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별독자에 대한 상담’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⁶⁹⁾ 독자상담에 대한 이론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보다 강화되고 있는데 이들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독자상담에서 ‘독자’에 보다 주목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독자란 무엇이고 독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비롯하여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 이유와 근거, 독자가 특정 책을 즐기는 이유, 책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독자는 책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에 주목하고 이를 조사하는 데서 독자상담이 출발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이 독자상담 교과목의 주요한 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⁰⁾

이들 학자의 주장을 반영한 듯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독자상담에 대한 이론을 강화하고 독자와 독서를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북미의 일부 대학에서 전개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와 웨스턴온타리오 대학교,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 2와 표 3 참고). 토론토대학의 경우 ‘Reading: Theories, Practices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라는 교과목을, 그리고 웨스턴온타리오대학은 ‘Reading Theory and Practice’라는 교과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리노이대학은 ‘Literacy, Reading and Reader’라는

68) Wayne Wiegand, “Missing the Real Story: Whe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ails the Library Profession,” *The Readers Advisor’s Companion*(Libraries Unlimited, 2001), pp.7-14. ; Kenneth Shearer and Robert Burgin, “Partly Out of Sight: Not Much in Mind: Master’s Level Education for Adult Readers’ Advisors’ Services,” *The Readers Advisor’s Companion*(Libraries Unlimited, 2001), p.21. 참고.

69) David Beard and Kete Vo Thi-Beard, “Rethinking Book : New Theories for Readers’ Advisory,”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7, No.4(Summer 2008), pp.331-335.

70) Duncan Smith, “Reconstructing the Reader: Education Readers’ Advisors,” *Developing Readers’ Advisory Services : Concepts and Commitments*(Neal-Schuman Publishers, Inc., 2001), p.21-30. 참고.

교과목과 'History of Readers'라는 두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교과목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현상으로서의 독서를 이해하고, 독서의 본질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에 주목하여 독자의 독서에 대한 선호도와 습관, 행태를 비롯한 독자에 대한 이해와 독서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사례를 조명하는 등 이와 관련된 독서이론과 연구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문헌정보학 외에 문화, 미디어, 사회학, 교육학, 문학비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독서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등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독자상담의 업무방식을 비롯하여 독자상담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부 문헌정보대학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IV. 결론 : 한국의 독자상담을 위한 사서교육에 관한 제언

이제 이 논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구자는 '독서'와 관련한 우리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현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도서관현장은 고객의 독서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은 고객의 독서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서를 양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객의 독서요구에 부응하고, 고객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현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연구자가 이 연구에서 독자상담과 독자상담을 위한 사서양성프로그램의 실태와 특성을 북미 문헌정보대학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던 것은 이러한 물음을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북미의 독자상담 및 사서 양성실태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독서와 관련하여 우리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현장이 논의해볼 사항을 제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 공공도서관의 독서서비스와 문헌정보교육의 현재와 실상을 짚어보았다. 우선 공공도서관의 독서서비스는 주로 방학독서교실, 독서회 등의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독서퀴즈대회나 독후감 대회 등의 일회성행사가 주를 이룬다. 참고데스크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독서자료를 안내하는 일상적인 독서지원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독서관련 단체 등 외부전문가의 손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⁷¹⁾ 독서교실과 같은 사서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도서관이용법이나 글쓰기를 비롯한 독후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다 프로그램 운영상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최근에는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이 학습형 독서와 논술이 중요시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맞추어 독서의 기술과 방법(구체

71) 한윤옥과 이연옥의 연구에 따르면, 사서는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주로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관리 등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프로그램의 내용개발과 지도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스스로 독서전문가라기보다는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한윤옥, 이연우,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08. 03), p.145.).

적으로는 글을 읽고 이해하며 분석하는 기술과 방법)과 논술쓰기 기술과 방법에 치중하고 이를 가르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을 담당한 사서로부터 “내가 국어교사인가? 아니면 논술교사인가”라는 자조어린 말이 나오기도 한다.⁷²⁾ 이는 도서관에서 독서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공중의 독서활동을 지원’⁷³⁾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중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합의마저도 없다. 그 결과 도서관의 독서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며 빈약한 모습을 띠게 되었고 그나마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서가 고객의 책과 독서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은 사서를 양성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서들은 현장에서 독서와 관련한 서비스를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며 독서와 관련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처음 독서교실 담당사서가 되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독서교실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하는가’였다”⁷⁴⁾며 당황해했다는 사서의 고백에서부터 “독서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사서로서 부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⁷⁵⁾이라는 지적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이에 더해,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를 조사한 이제환의 연구를 보면 독서와 관련한 문헌정보 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보다 잘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사서들은 “책의 내용은 뒤로 하고 물리적 속성만을 다루는 지금까지의 업무내용과 방식으로는 사서의 전문성을 내세우기가 힘들다”며, 사서가 “책의 내용을 장악하고 이용자들의 독서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을 지식의 바다로 이끌어 넬 수 있는 능력”⁷⁶⁾을 배양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뒷받침해주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의 도서관현장에서는 사서의 독서서비스와 관련한 전문적 교육에 대한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우리의 상황은 ‘독자상담’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필요로 한다. 독자상담은 시민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전통적 서비스이자 도서관에 기반 하는 독서활동의 이론적 근거로서 북미 도서관계에서 오랫동안 활성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며, 용어마저도 생소하다. Readers' Advisory라는 용어보다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Reading Guidance가

72) 상계논문, p.140.

73)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 제2조 3항(일부개정 2009. 03. 25).

74) 국립중앙도서관, 2004년 전국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사례집에 소개된 사서의견.

75)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 전국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사례집에 소개된 사서의견.

76) 이제환 외,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4호(2005. 12), pp.63-64.

오히려 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를 ‘독서지도’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독자의 독서흥미나 관심, 욕구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저자나 작품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Reading Education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며 “독서하는 태도, 지식, 기술능력,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개발의 지도”⁷⁷⁾라는 교육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⁷⁸⁾ 그 결과 도서관현장 사서들은 “책을 읽기를 원하는 독자에게 그들의 배경, 관심, 요구에 적합한 책을 제공하기보다는 독서하는 방법이나 태도, 이론을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이다.⁷⁹⁾

이러한 오류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제환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 현재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32개 문헌정보학과 중 독자상담(Readers' Advisory)교과목은 하나도 없는 반면에, 독서지도 혹은 독서교육을 독립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28개 학과인 것으로 나타난다. 독서교육 교과목은 일반 독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거의 모든 강좌가 독서 및 독서교육의 의의와 목적, 이론, 방법에 치우쳐져 있는 반면에 독서자료에 대한 소개는 몇몇 대학의 강좌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울러 동일 교과명임에도 이를 담당하는 강사에 따라 내용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⁸⁰⁾ 이는 이명희의 연구에서도 조사된 바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문헌정보학에서의 독서교육 교과목이 이론중심적이며 추상적인 내용에 중점을 둔 데다 주입식 강의로 진행되어 실제 도서관현장에서 ‘독서교육’조차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⁸¹⁾ 이처럼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은 도서관현장에서 독서와 관련한 전문적 서비스를 이행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현장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은 독서와 관련한 문헌 정보 교육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에서 독서관련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독서관련 교과목의 개정과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독자상담은 시민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전통적 서비스로 도서관에 기반 하는 독서활동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독서 관련 교과목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독서와 관련한 도서관현장과 문헌정보 교육의 혼란과 문제를 극복하며 동시에 문헌정보학에서의 ‘독서영역’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독자상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환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의 현행교과목으로는 도서관현장에서 요구되는

77) 사공철 등 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93.

78) 이에 대해서는 이제환의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제환, 전계논문, p.18.

79) 상계논문.

80) 상계논문, pp.19-21.

81) 이명희, “독서교육 교과목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 문헌정보학과에서 제공되는 독서교육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1호(2007), p.35.

독서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렵다면, ‘독자상담’ 관련 교과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관련 교과목의 개편과 정비는 사서가 독자상담 업무에 대한 지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자상담 업무에 대한 지적기반은 구체적으로 “‘*適者에게適書를 適時에 제공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독서의 동기와 영향, 사회성을 이해할 수 있고, 자료(스토리)의 문화적 맥락과 함축된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료에 친숙하며 appeal factors를 분석하고 비평까지 작성할 수 있을 때 갖춰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관련 교과목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⁸²⁾

연구자 또한 이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다만, 앞서 독자상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북미 문헌정보대학원의 독자상담 교육과정을 검토한 것을 토대로 독자상담을 비롯한 독서관련 교과목에서 다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 독서의 원리와 본질, 과정, 사회현상으로서의 독서에 대한 이해
- 독자에 대한 이해와 지식
-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
- 독자와 독서자료를 매개하는 기술과 방법

우선, 독자상담을 비롯한 독서관련 교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독서의 원리와 본질, 사회현상으로서의 독서를 이해하고 이에 관련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독서관련 교과목에서는 ‘독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독자란 무엇인가, 독자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아는 것이 요구된다. 독자의 요구와 흥미, 독서능력의 발달,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 이유와 근거, 독서습관과 태도, 책에 대한 독자의 반응과 영향 등의 독서경험과 독서행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독서관련 교육과정에서 담아야 할 내용은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다. 독서자료는 어린이자료, 청소년자료, 성인을 위한 독서자료로 구분해서 이를 내용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강좌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지식을 획득하기 어렵기에 독서계층에 따라 구분하는 복수강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독서자료에 대한 지식을 비롯하여 책의 출판과 유통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독서자료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개별 독서자료에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이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시키며 이를 토대로 독자에게 맞는 책을 추천하고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책의 어떤 부분이 독자의 주의를 끄는지, 독자에게 책이 흥미롭고 매력적인 다양한 요소, 즉 책의 호소력

82) 이제환, 전계논문, p.27.

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해제나 서평 등의 책에 대한 글쓰기나 책에 대한 말하기 등 언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독서관련 교과목에서는 독자와 독서자료를 매개하는 기술과 방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우선, 독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요구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질문하며, 면담하는지 등 독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담과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는 독서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독서자료의 배열과 전시를 비롯하여 스토리텔링, 북토크, 북디스커션 등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포함될 수 있다.

이상으로 연구자는 독자상담을 비롯한 독서관련 교과목에서 다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제안해 보았다. 연구자의 제안이 단지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독서관련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문헌정보학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아울러 연구자가 덧붙여 제언하고 싶은 바는 현장사서들을 위한 재교육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장사서들에게 독자상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워크샵이나 컨퍼런스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서들의 현장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독서자료를 이해하고 이를 내용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사서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북미 독자상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독자의 독서에 조언하고 고객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고객에게 인기 있는 작가와 책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사서 자신들의 독서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바로 독서자료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의하는 것은 사서의 일상적 업무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며, 이렇게 축적된 책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독서목록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독자상담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었다. 독서자료에 내용적으로 친숙해지기 위한 사서의 활동은 고객의 독서관련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도서관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사서의 의도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오지 않았던가.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현장이 함께 '독서관련 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